



우공투자 | 06.08/26 12:24

수정 | 삭제

배당의 함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익잉여금과 이로 인해 늘어나는 주주자본으로 해마다 그에 상응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리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즉 늘어나는 이익잉여금은 ROE의 분모를 구성하는 주주자본(자기자본)이 증가하므로 ROE가 꾸준히 늘어나거나 혹은 유지하려면 분자를 구성하는 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합니다.

이익의 증가가 어려울 경우, 배당과 같은 사외 유출을 많이 하여 이익잉여금을 줄임으로서 분모에 해당하는 주주자본을 낮춰서 ROE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답글쓰기



우공투자 | 06.08/26 12:31

수정 | 삭제

ROE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주주자본만큼 이익도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악화되어 순이익이 줄어들 경우 주주에게 고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자본에 유입되는 이익잉여금을 낮춰서(분자에 해당하는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 만큼 분모에 해당하는 주주자본을 적정 유지하여) 의도적으로 ROE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답글쓰기



우공투자 | 06.08/26 14:03

수정 | 삭제

ROE의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그림자를 말씀드리고자 하였던 바...

그래도 역시 주주(투자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투자지표는 주주자본의 리턴인 ROE입니다. ROE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될수록 그 유용성은 배가됩니다. 대개는 고ROE가 연속되는 기업은 고PER, 고PBR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주주에게 돌아올 리턴을 생각하고 프리미엄을 얻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 답글쓰기



우공투자 | 06.08/26 14:19

수정 | 삭제

추가)

ROE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순이익이 감소하였을 경우(ROE가 떨어지겠죠) ROE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유보율을 낮춰서(즉, 줄어드는 순이익의 비율만큼 고배당과 같은 사외유출을 늘려서) 일정한 값의 ROE를 유지하는 재무적 기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답글쓰기